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인증캠페인

# 노벨상? 과학전?

### '노벨사이언스체험전'에 한 번 가볼까?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을 기금으로, 해마다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도록 하시오." 1896년 12월, 스웨덴의 한 과학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다. 그는 니트로글리세린과 흑색 화약을 섞어 만든 폭약 '다이내마이트'로 큰 돈을 벌어들인 사업가기도 했다. 애초 그는 터널 등을 쉽게 뚫기 위해 '다이내마이트'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곧 살상 무기로 변질됐다. 유럽 곳곳에 다이내마이트 제조 공장이 건설됐고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마음 한 편으로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결국 그는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스웨덴 과학아카데미에 기증했다. 과학 발전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면서, 그의 이름을 딴 상은 1901년부터 물리학, 화학, 생리학·의학, 문학, 평화 등의 부문에 걸쳐 시상됐다. 그의 이름은 알프레드 노벨이다.



### 전시를 보는 Tip

#### #어린이는 이렇게

어린이들은 대체로 '전시'라고 하는 것을 재미없다고 받아들이지만 이 과학전은 '체험전'이라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 설명도 마련돼 있다. 전시장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에게 수시로 노벨 체험전의 재미있는 요소들을 골라 소개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 또 세균번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으름장과 비금이의 이야기를 다룬 '노벨과 화학', 레이저 쇼, '트리보' 애니메이션 상영, 노벨 놀이방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테마들이 잔뜩 있다.

사실 어린이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얼마나 잘 이끌어주느냐에 따라 전시문화 적응도가 달라진다.

노벨사이언스 조직위원회 전시총괄 김경 대표는 "어린이는 그야말로 체험, 즉 이런 과학 문화를 접하는 것만도 성공일 것"이라며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을 이끌 것을 당부했다.

#### #청소년은 이렇게

혹시 이 공계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전시는 안성맞춤이다. 과학이라면 직설인가? 이 전시에서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과학을 접해보자.

청소년들은 각 전시 색선마다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라식수술, X-레이, MRI(자기공명영상법) 등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의료기술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만약 전시 설명이 좀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주저 말고 전시장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언제든 친절하게 원리를 설명해 줄 것이다.

또 전시를 통해 노벨상 수상자들을 만나보면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김경 대표의 말이다.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은 하루 아침에 그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싸우고 끈질기게 노력했지요. 이 전시를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노벨상'의 제정자 노벨에 대해 알아봤다면 지금 서울국립과학관에서 계속되고 있는 '노벨사이언스체험전'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 전시는 과학기술부 후원으로 과학문화진흥회가 주최했다.

전시의 자문을 맡고 있는 서울대 물리학과 김제환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전시로 만나보며, 그들이 이루어 놓은 과학적 업적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스며 들어있는지 알고 과학에 대한 매력과 애착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한다. 과학도 미술처럼 전시로 즐길 수 있다는 말이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먼저 노벨과 노벨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이후에는 우리 생명의 기원, 우주의 소리가 들려오는 방, DNA통로 등이 기다리고 있다. 신비한 기분을 느끼며 터널을 지나면 '세포방' '생명의 신비' '미생물의 세계' 등으로 나뉘어진 전시장이 나타난다. 전시를 통해 ABO식 혈액형, 효소·호르몬의 작용, 비타민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이런 것들 모

두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견해 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어 2층에서는 'DNA', '질병을 진단하는 노벨 과학' 등의 주제가 있다. 노벨상 수상자들 의해 어떤 질병들이 극복됐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학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어린이청소년이 '노벨상'이라는 익숙한 매개를 통해 쉽게 과학을 접함으로써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전시는 내년 3월 2일까지 계속되며 오전 10시~오후 7시 관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nobelstory.com)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습득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전시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다. 하지만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전시를 보는 방법을 달리해야 전시 의미가 더 세심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파라미터청소년협회에서는**  
스리랑카 위하라 고다에서 의료봉사할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5명을 모집하고 있다. 의료구조활동을 통해 국제 빈민들의 실상에 대해 바로 알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다. 스리랑카 일정은 11월 30일~12월 6일이며 참가비는 95만원이다. (02)723-6165

**서울특별시청소년미디어센터 내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공모사업인 '미디어중독SOS지원단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학교에 인터넷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일시는 11월 24일이며 장소는 서울 근교 유원지다. (02)795-8000

**부산진구청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학업 및 적성·진로, 성·이성교제, 성격 등 심리정신건강문제 1:1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며, 청소년과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051)868-0950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발명의 화가 반 고흐 전'이 11월 24일 개막된다.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과 크렐러 필러 미술관의 협력으로 열리는 이번 회고전은 반 고흐의 작품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로 '아이리스' '자화상' 등이 국내 처음으로 소개된다. 문의: 반 고흐 전시본부 1577-2933, 서울시립미술관 (02)2124-8800

**충남 예산군 문화회관에서**  
고구려 평원왕 시대 평강공주의 시녀, '연이'의 이야기가 연속으로 펼쳐진다. 11월 23일 오후 2시, 7시 두 차례 공연되는 이 연극은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준비됐다. (041)330-2255-6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51로 연락주세요

장례에서 이장, 택일, 제사까지  
**확 트이는風水**  
**꼭 잡히는地理**

풍수의 모든 것을 총정리한 책!  
이 한 권으로 풍수는 끝난다!!

제 1 장 풍수風水의 의의意義  
제 2 장 풍수의 기초 이론基礎理論  
제 3 장 용세론龍勢論  
제 4 장 혈장론穴場論  
제 5 장 사격론砂格論  
제 6 장 수세론水勢論  
제 7 장 좌향론坐向論  
제 8 장 형국론形局論  
제 9 장 구중 나경 사용법九層羅經使用法  
제 10 장 발복發福 추산법推算法  
제 11 장 장택론葬擇論

저자 정판성 박사

쉬운 문장, 많은 그림, 현대적 용어로 설명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풍수 책!

사람들이 풍수를 배워서 명당에 묘를 쓰고 집터를 잡아 행운을 얻게 하는 잡술서가 아닌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저술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이 책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많은 이분들을 제시켰으므로 별도로 다른 풍수서적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도움을 얻기 바랄 뿐이다.

청암출판사 전화: 02)354-8646 팩스: 02)384-8644

신국문 752쪽 값 30,000원

양촌 법계사 신중탱화(동)

양촌 법계사 삼세불

**四代傳統**  
계룡산과 계보도  
금호당 약효→보응당 문성→회응당 상근→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받치는 산"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성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지비로서 밝고 환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http://www.chunjusa.org)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탑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 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 깨달음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